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 간 교류를 위한 공공시설 건축 계획 연구

- 일본 후쿠이시 공민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Architectural Planning of Public Facilities for Intergenerational
Exchange in the Era of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 Based on Community Centers in Fukui City, Japan

배민정* Bae, Min Jung | 토리이 카즈시** Torii, Kazushi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plores the architectural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public facilities designed to support intergenerational exchange, focusing on community centers in Fukui City, Japan. It aims to identify design strategies and operational methods that effectively address challenges in aging and low-birthrate societies. **Results:** The analysis reveals that strategic location and flexible spatial configurations significantly enhance accessibility and foster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 Community centers equipped with features such as multipurpose spaces, movable walls, and family-friendly amenities like diaper-changing stations accommodate diverse user needs. Furthermore, targeted programs such as agricultural activities, cooking workshops, and IT training were found to bridge generational gaps and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Implication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integrating adaptable spatial planning with community-specific program development to address demographic challenges. The findings provide actionable insights into designing public facilities that encourage intergenerational collaboration and strengthen community cohesion. These strategies are applicable not only in Japan but also in other regions facing similar societal issues, offering a framework for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주제어: 공민관, 세대 간 교류, 저출산 고령화

Keywords: Community Center, Intergenerational Exchange,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1. 서론

1.1 배경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적 문제로, 이에 따라 세대 간 교류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이윤경 외, 2020)에서 "노인과 젊은 사람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77.0%가 동의했으며, 이는 세대 간 단절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12월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 비해 18년 앞선 200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특히 독거노인의 증가를 배경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세대가 교류하는 것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은 이웃 간 교류와 지역 사회의 연계를 약화시키고, 가족 간 물리적·정서적 거리감을 심화시켰다. 이는 지역 공동체 내에서 전통과 문화의 계승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일본 정부는 공공시설의 병설과 홍보·계몽 활동을 통해 세대 간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회원, 조교수, 건축·도시환경공학과, 후쿠이대학교
(주저자: bae@g.u-fukui.ac.jp)

** 회원, 학사과정, 건축·도시환경공학과, 후쿠이대학교
(hc219061@g.u-fukui.ac.jp)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공민관(표 1)은 지역 주민들의 평생 학습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며, 특히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주목받아 왔다. 공민관은 전후 일본의 사회교육을 대표하는 상징적 시설로, 1946년 문부차관 통첩 「공민관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 통첩은 전후 일본의 재건을 목표로 하며, 정촌¹⁾ 단위에서 지역 사회의 종합적 발전과 사회교육을 중심으로 공민관 설치를 장려했다. 2000년대 이후 공민관은 가정교육과 청소년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등 기능이 확대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공민관이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세대와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며 적층해 온 과정을 보여준다.

[표 1] 공민관의 정의 및 기능

정의	일본의 지역주민을 위해 주민들의 교양 향상, 건강증진, 정서 함양, 생활 문화 진흥 및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교육 시설
기능	지역 학습 거점 기능 : 주민들의 교양 향상과 생활 문화 진흥을 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강좌 및 워크숍을 운영.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기계발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
	가정 교육 및 청소년 지원 : 부모 교육과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 내 교육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양육 환경을 조성.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성 발달을 지원.
	세대 간 교류 촉진(세대 통합 학습 프로그램 및 다세대 공유 공간 제공) :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하는 전통공예, 요리 교실, 음악 활동 등을 운영하여 세대 간 이해를 증진.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일상 속에서 다양한 세대가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환경 보호 활동, 지역 축제 등을 기획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
방재 거점 기능 : 자연재해 발생 시, 일시적인 대피소로 활용되며, 재난 대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공민관 설치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 시설의 노후화, 이용률 저하, 그리고 다른 시설과의 기능 중복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²⁾ 이에

1) 정촌(町村)이란 한국의 읍과 면에 해당하는 일본의 행정 구획의 명칭.
 2) 일본에는 공민관과 유사한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커뮤니티센터, 문화회관, 시민센터 등이 존재한다. 커뮤니티센터는 1970년대 총무성의 커뮤니티 진흥 정책에 따라 도입된 시설로, 지역 주민의 복지 및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공민관과 달리 사회교육법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소 유동적인 특징이 있다. 문화회관은 주로 공연, 전시 등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시민센터는 주민의 모임이나 지역 행사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기능한다. 반면에, 공민관은 사회교육법에 근거한 공식적인 사회교육 시설로, 전문 사회교육 지도사가 상주하며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과 교류 활동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반해 후쿠이현은 공민관 설치율이 전국 평균(78.7%)을 크게 상회하며, 모든 시정촌에서 100% 설치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후쿠이시는 현재 50개의 공민관이 지역 밀착형으로 운영되며, 주민들의 평생 학습과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민관에서는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년층과 청년층이 함께하는 지역 역사 전승 활동, 다세대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후쿠이현의 사례는 공민관이 지역 사회의 핵심 시설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며,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후쿠이시 공민관은 이러한 특성에서 특히 주목받는다. 시 교육위원회 평생학습과의 통합적 관리 아래 공민관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지역의 인구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공민관이 세대 간 교류를 지원하는 건축적 역할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사례로 선택된 이유이다.

1.2 목적

본 연구는 후쿠이시 공민관을 사례로, 공민관의 건축적 특성과 공간 배치를 분석하여 세대 간 교류를 지원하는 건축적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세대 간 교류를 지원하는 공공 시설의 건축적 역할을 조명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설정하였다.

- 1) 후쿠이시 공민관의 주변 시설과의 관계 및 독립관과 병설관의 건축 구성을 분석한다.
- 2) 현장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해 각 공민관의 이용 실태와 특징을 파악한다.
- 3)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 교류를 지원하는 공간적 요인을 규명한다.

1.3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세대 간 교류

본 연구에서 '세대 간 교류'란 다세대 간에 존재하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吉津晶子·溝邊和成, 2017)으로 정의하며, 이는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세대 간의 경험과 지식이 교환되고, 공동의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이 촉진되는 과정이 포함된다.

2) 세대 간 교류를 지원하는 공간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세대 간 교류를 지원하는 공간'은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물리적 환경과 공간 배치를 갖춘 시설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공간이다.

1.4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후쿠이시 공민관의 운영 현황과 공간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건축 도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지구별 인구 특성과 위치적 특성을 분석했다. 또한 공민관 연사 및 관련 법률의 변천을 분석하여 연구의 배경을 정리했다.

2) 인터뷰 조사

본 연구에서 인터뷰 조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했다. 첫째, 후쿠이시 공민관의 운영 체계와 정책적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후쿠이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과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인터뷰에서는 공민관의 전반적인 운영 방침과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방향 등을 확인했다.

둘째, 개별 공민관의 역할과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공민관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공간 배치 및 활용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의 실태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공간, 그리고 해당 공간이 세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한 공간을 선별하고, 해당 공간의 특징과 배치 방식을 3장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그림 8]을 통해 공간별 교류 촉진 요인을 비교함으로써, 공간적 구성이 교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였다. 이 두 가지 인터뷰 조사는 공민관 운영의 거시적 구조와 개별 공민관의 세부적 특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됐다.

[표 2] 인터뷰 조사 및 현장 조사 일정

조사대상	인터뷰 조사일	인터뷰 대상	현장 조사일
후쿠이시 생애학습과	2024.11.07	주임(主査)	-
Jun 공민관	2024.11.21	관장	2024.11.21
Ho 공민관	2024.11.29	관장	2024.11.29
Me 공민관	2024.12.03	관장	2024.12.03
Mo 공민관	2024.12.11	관장	2024.12.11
Ni 공민관	2024.12.17	관장	2024.12.17
중양 공민관	2024.12.17	관장	2024.12.17
En 공민관	2024.12.18	관장	2024.12.18
Mi 공민관	2024.12.20	관장	2024.12.20
Ki 공민관	2024.12.20	관장	2024.12.20
Asu 공민관	2024.12.24	관장	2024.12.24
Shi 공민관	2024.12.27	관장	2024.12.27

3) 현장 조사

세대 간 교류를 지원하는 공간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공민관의 물리적 환경과 운영 실태를 직접 관찰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공민관의 공간 활용 방식, 시설 구성,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사 대상 공민관은 세대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선정되었으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민관 인근(300m)에 초등학교, 어린이 보육 시설, 아동관 등의 시설이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공민관.

(2) 어린이 교실을 운영하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세대 간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민관.

(3)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거나 15세 미만, 혹은 15세에서 64세 미만의 인구 비율이 높은 공민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공민관은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통해 세대 간 교류를 지원하는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의 특징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사례로 간주되었다. 조사 대상 공민관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현장 조사에서는 주요 공간의 배치와 세대 간 교류를 지원하는 공간적 특징을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조사 과정에서 메모와 함께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공간 구성 및 활동 현황을 시각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촬영을 병행했다.

특히, 각 공민관의 공간적 특성과 운영 방식이 세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중점을 두어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세대 간 교류를 위한 효과적인 건축적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2. 후쿠이시의 공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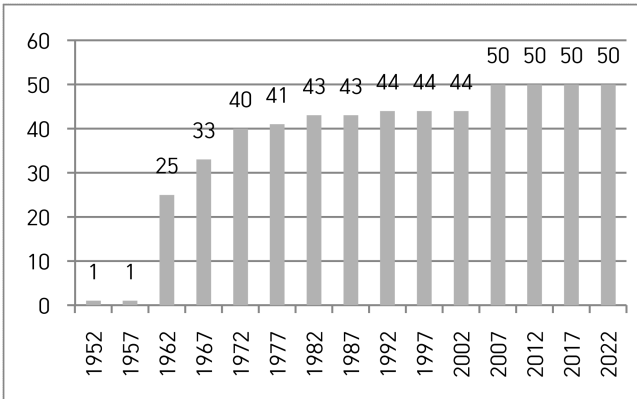
2.1 후쿠이시 공민관의 역사

1946년, 후쿠이현 각지에서 청소년들이 그룹을 형성해 문화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후쿠이 시내 공회당 현관에 공민관 간판을 설치하고, 의사당을 학급 및 강좌 공간으로 활용했다. 1947년에는 사회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한 후쿠이시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공민관 건립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민관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후쿠이시 공민관을 창설하며 시청 내에 사무국을 두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같은 해, 덴카 공민관이 전국 표창을 수상하며, 후쿠이현 지자체장, 의원, 교육위원, 학교 교직원들이 시찰을 위해 방문했다.

1949년에는 공민관 설치 및 운영의 기준이 되는 사회교육법이 성립되었고, 1950년부터 공민관 설치 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후쿠이시는 관련 조례와 규칙을 신속히 제정하고, 공민관 설치를 장려했다. 후쿠이시 공민관 설치 조례에 따르면, 본관은 시청 내에 설치하고, 각 분관은 동부회관(동부분관), 서부회관(서부분관), 남부회관(남부분관), 북부회관(북부분관)과 같은 지역 회관에 병설되었다. 농업 공동작업소, 초등학교 등 다양한 시설 내에 분관이 설치되었으며, 예를 들어, En 초등학교 내 En분관(현 En 공민관의 전신), Ni 초등학교 내 Ni분관(현 Ni 공민관의 전신)이 설치되었다.

[표 3] 후쿠이시 공민관의 역사

1946년	후쿠이현 각지의 청소년 그룹에 의한 문화 활동이 후쿠이시의 공회당 건물에서 시작
1947년	공민관 위원회의 설치. 후쿠이시 공민관을 창설
1949년	사회교육법 성립
1950년	본관 1개 관, 분관 10개 관을 설치
1951년	공민관 미설치 지자체에 개설 요청
1953년	청년학급 진흥법의 통과
1955년	국고 보조에 의해 헤이센지 공민관이 준공
1959년	사회교육 기구의 개혁안이 제안됨
1966년	공민관에 열람실 및 서고 설치의 급증
1975년	청년층 중심에서 장년층 중심으로 변화
1980년대	생애학습 시대의 시작
1998년	43개 지구로 재편
2001년	히가시야고공민관을 중심으로 소년학급 및 중고생 대상 활동을 증진
2005년	행정지구 통합으로 인해 49지구로 재편. 중앙공민관을 포함하여 총 50개 관으로 증가
2017년	1970년부터 Jun공민관에 병설되어있던 중앙공민관의 독립



[그림 1] 후쿠이시 공민관 수의 변화

1953년, 청년학급 진흥법이 통과되며 공민관에서의 청년 교육이 체계화되었다. 1955년에는 국고 보조로 후쿠이현 내 첫 독립시설인 헤이센지 공민관(후쿠이현 가쓰야마시 소재)이 준공되었고, 이후 독립 공민관 설치가 급증했다. 그 결과, 1951년 1개 본관만 있던 후쿠이시 공민관은 1959년 23개 관으로 증가했다.

1959년, 현 후쿠이시 공민관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교육기구 개혁안이 제안되었다. 이후 공민관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61년 25개 관, 1963년 27개 관, 1967년 33개 관, 1972년 40개 관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66년부터 후쿠이현은 도서 공간을 마련한 공민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열람실과 서고 설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1970년에는 주민들의 강한 요청과 기부금으로 Jun공민관이 설치되었으며, 이후 1977년 문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전국 우수 공민관으로 인정받았다. 이어 1987년 야시로미나미공민관이 문부대사 표창을 수상하는 등 후쿠이시의 공민관들은 지역 주민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1975년부터는 기존의 사회교육에서 생애학습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도입되면서, 공민관의 역할이 크게 확장되었다. 체육대회, 걷기대회, 문화제 등 지역 단위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 중심이었던 활동의 중심이 점차 장년층으로 옮겨갔다.

2001년부터는 히가시야고공민관을 중심으로 소년학급 및 중고생 대상 활동을 증진시키며, 공민관 이용자의 고령화와 청년층 이용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행정지구 통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후쿠이시는 2005년에 49개 지구로 재편되었고, 지구 수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각 지구별로 1개 관씩 공민관이 설치되어 현재 중앙 공민관을 포함한 총 50개 공민관이 운영되고 있다.

2.2 후쿠이시의 지구별 공민관

상술한 바와 같이 후쿠이시에는 총 50개의 공민관이 있으며,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공민관을 제외하면 49개 지구에 공민관이 1개 관씩 균등하게 입지하고 있다. [그림 2]는 후쿠이시의 공민관 지구별 분포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각 공민관이 지구 내 주민들의 생활권과 지형적 조건을 고려하여 입지된 방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림 2] 후쿠이시의 지구별 공민관

후쿠이시는 중심부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쪽과 북쪽으로 갈수록 산지와 산림 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지형적 차이로 인해 공민관의 입지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중심부와 평지 지역의 공민관은 주로 지구의 중앙에 입지하여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공민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산지와 산림이 많은 지역에서는 공민관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민가 지역에 입지하며, 특정 지역에서는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분관이 설치되기도 한다.

특히, 후쿠이시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미야마지구는 후쿠이시 전체 면적의 약 1/4을 차지하는 넓은 지역으로, 약 90%가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미야마공민관은 후쿠이시에서 유일하게 6개의 분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입지결정이라 할 수 있다.

[표 4] 지구별 공민관과 인구 및 세대수

블럭	공민관	인구	세대수	인구/세대수
아타고	Ki ^{◎*}	14,151	5,851	2.42
	미노리 [*]	9,892	4,384	2.26
	Asu ^{◎*◇}	5,302	2,517	2.11
	Mi ^{◎*◇}	8,382	4,320	1.94
후시초	하루야마 [*]	5,968	2,860	2.09
	Ho ^{◎*◇}	4,622	2,082	2.22
	Jun ^{◎◇}	3,323	1,737	1.91
	마츠모토 [*]	11,451	5,598	2.05
	히노데 [*]	6,975	3,353	2.08
	야사히 ^{*◇}	5,073	2,343	2.17
	닛산 [*]	5,505	2,675	2.06
미나미	세이메이 ^{*◇}	7,572	3,208	2.36
	히가시아고 ^{*◇}	6,574	3,098	2.12
	야시로미나미 ^{*◇}	13,489	5,398	2.50
	야시로키타 ^{*◇}	8,333	3,580	2.33
	야시로니시 [◇]	5,567	2,391	2.33
	아소즈 [*]	7,387	2,888	2.56
아즈마	와다 ^{*◇}	11,442	5,025	2.28
	En ^{◎*}	8,125	3,293	2.47
	케이모 ^{*◇}	7,974	3,556	2.24
	오카보 [◇]	2,148	784	2.74
	히가시후지시마 ^{*◇}	3,533	1,338	2.64
쿠즈류	Ni ^{◎*◇}	4,586	1,815	2.53
	나카후지시마 [*]	12,185	5,138	2.37
	카와이	3,623	1,343	2.70
	Mo ^{◎*}	16,428	6,502	2.53
	Me ^{◎*◇}	15,662	6,574	2.38
히카리	아고 [◇]	2,965	1,165	2.55
	이카리	25	22	1.14
	덴카 [◇]	338	169	2.00
	코시노 [◇]	913	486	1.88
	Shi니시 [◇]	2,878	1,059	2.72
	Shi히가시 [◇]	1,677	557	3.01
	Shi미나미	1,968	826	2.38
	Shi키타 ^{◎*◇}	2,212	893	2.48
카와니시	다이안지	1,056	431	2.45
	쿠니미	859	389	2.21
	우즈라 [*]	2,712	995	2.73
	나츠메 [◇]	1,343	520	2.58
	타카스코	1,602	666	2.41
	혼고	932	362	2.57
	미야노시타	773	304	2.54
아스와	사코 [*]	3,101	1,123	2.76
	이치쵸 [◇]	674	288	2.34
	카미몬자 [◇]	1,561	602	2.59
	몬자 [*]	2,057	712	2.89
	로쿠쵸 [◇]	1,950	782	2.49
	토고 [*]	3,797	1,312	2.89
	미야마 [*]	3,381	1,331	2.54
시 전역	중앙 [◎]	254,333	108,488	2.34

※ 福井市役所, 2025.01.12. (2025년1월1일 기준)

이러한 입지 방식은 공민관이 단순한 문화·복지 시설을 넘어, 지역 방재 거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평지 지역에서는 피난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구 중앙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산지 지역에서는 마을 단위의 독립적인 생활권과 접

근성을 고려하여 공민관을 주거지와 가깝게 입지하거나 분관을 설치한다. 이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관 등 다른 공공시설과 차별되는 공민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후쿠이시의 공민관 입지는 중심부와 주변 지역의 지형적 조건,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권을 반영하여 계획되었으며, 지역 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

[표 4]는 각 공민관이 위치한 지구별 인구와 세대수를 나타낸 자료로, 공민관이 위치한 지역의 규모와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³⁾ 2025년 1월 1일의 통계를 기준으로 후쿠이시의 전체 인구는 254,333명, 세대수는 108,488세대이며 지구별 평균 인구는 약 5,190명, 평균 세대수는 약 2,214세대, 세대별 인원수는 2.34명으로 일본 전국 세대별 인원수인 2.23명 보다 많다. 그러나 지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Me공민관의 지구(인구 15,662명, 세대수 6,574세대), Mo공민관의 지구(인구 16,428명, 세대수 6,502세대), Ki공민관의 지구(인구 14,151명, 세대수 5,851세대) 등에서는 인구와 세대수 모두 큰 규모인 반면에 이카리공민관의 지구는 인구 25명, 세대수 22세대, 세대별 인원수가 1.14명으로 매우 작은 규모의 지구로써 지구소멸이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민관에서 도보로 300미터 이내에 초등학교가 위치한 공민관은 총 26개 관으로 확인되었으며, 공민관 지구 내에 아동관이 포함된 공민관은 29개 관이다. 이 중 초등학교와 아동관이 모두 포함된 공민관은 14개 관으로 나타났다. 후쿠이시는 자동차 중심 도시로, 청소년과 성인들이 주로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비해 아동은 도보 이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아동관 인근에 공민관이 위치한 것은 아동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애학습과에 따르면, 공민관 주변에 보육 시설이나 초등학교가 위치한 경우, 해당 공민관에서는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좌 및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목적 화장실 및 기저귀 교환대와 같은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시설적 특징은 공민관이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을 포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3 소결

후쿠이시의 공민관은 지역의 역사적 변천과 함께 공간의 성격이 변화해왔으며, 지형적 특성과 생활권을 반영한 입지 형태를 보인다. 평지 지역에서는 지구 중앙에 입지하여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산지 지역에서는 주민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입지하거나 분관을 설치하여 이용 편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공민관은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과의 연계,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세대 간 교류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3) ◎ 인터뷰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공민관
 ※ 공민관 지구 내에 아동관이 있는 공민관
 ◇ 공민관 300m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공민관

이와 같이, 후쿠이시 공민관의 공간 구성과 운영 방식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공민관이 지역 사회 내 교류 거점으로 기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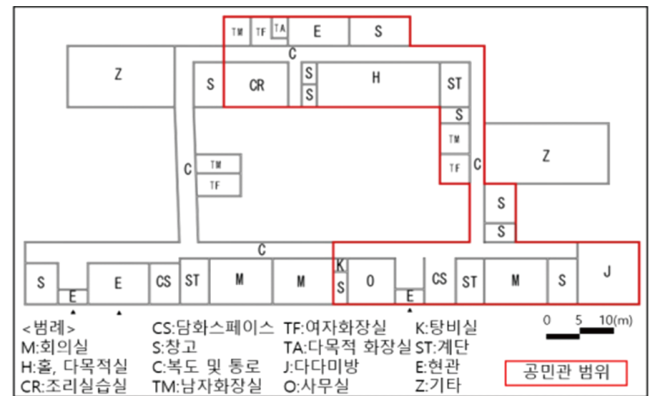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문헌조사로 선정한 공민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및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진 주요 공간의 특징과 활용 방식을 밝힌다. 조사 대상이 된 공민관은 Jun, Me, Mo, Ni, En의 5개 공민관으로, 각 공민관의 개요는 [표 5]에 정리하였다.

[표 5] 공민관 개요

명칭	Jun	Me	Mo	Ni	En
연혁	1960년	1975년 4월	1951년 5월	1949년 4월	1948년 4월
구조	RC조	RC조	RC조	RC조	RC조
층수	3층 건물의 1층위치	지상2층	지상3층	지상2층	지상2층
대지면적	14,174.0㎡	1,627.0㎡	1,955.0㎡	988.6㎡	1,698.0㎡
연면적 (공민관 전용)	1,029㎡	759.0㎡	1,277.2㎡	624.9㎡	646.5㎡

다세대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1층 전체를 사용한 축제 개최나 합동 대피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공민관은 피난소로서 지정되어있지 않지만 재해시에는 다다미방([사진 1] d)을 피난약자들을 위해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생애학습과와 Jun공민관 관장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독립된 공민관의 병설은 후쿠이시의 최초의 사례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기 이전에 계획되었다. 당초에는 월 1회 체육관에서 지구 내 고령자들과 Jun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점심을 함께 먹는 이벤트 등도 기획했지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무산되어 2025년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또한 세대 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교육계 학자들과 연계하여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새로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림 3] Jun공민관 도면

3.1 Jun공민관

1959년 12월 공민관 Jun초등학교 내에 분관으로써 창설되었으나, 1960년 4월 후쿠이시 공민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분관을 폐지함과 동시에 독립공민관으로 설치되었다. 1970년 신축이전하여 중앙 공민관과 병설되었고, 2020년 4월 건물의 노후화와 후쿠이시 인구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Jun초등학교의 빈교실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면적 약 3600㎡인 3층 건물의 Jun초등학교의 1층의 일부 공간(면적 1029.9㎡)에 병설되었다.

Jun공민관이 있는 건물에는 남쪽에 Jun초등학교와 Jun공민관 출입구가 각각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북쪽에는 자동차 이용자들의 출입을 위한 Jun 공민관 전용 부출입구가 추가로 있다. 공민관의 주출입구 옆의 담화스페이스는 초등학생들이 방과후 부모님을 기다리거나 학원시간 전까지 대기하는 공간으로 이용된다. 현장 조사 시에 체육관에서는 고령자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옛날 전통놀이교실을 진행하고 있었으며([사진 1] a)), 홀([사진 1] b))은 초등학교와 공민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지역 축제나 떡 메치기 행사 등,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이 기획 및 운영되고 있었다. 조리실([사진 1] c))에서는 고령자와 아동이 함께하는 어린이 요리교실이 정기적으로 열리며,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함으로써 3세대 간 교류 활동으로 확장되면서 이를 통해 음식 문화를 매개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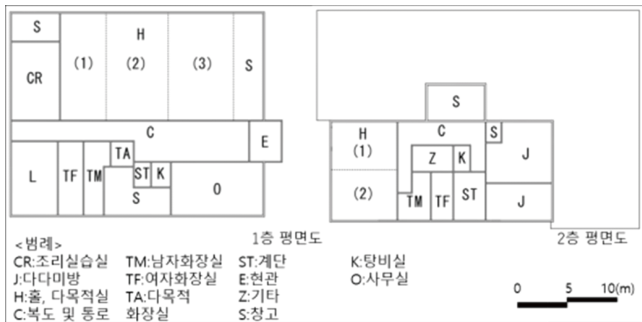
[사진 1] Jun공민관

3.2 Me공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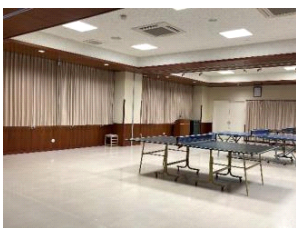
Me 공민관은 1975년 4월 29일 후쿠이시 공민관 출장소로서 개관했다. 1999년 7월 10일 공민관 내에 도서실을 열었으며 2007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고 2022년 10월 개수공사를 실시했다. 1627㎡의 대지면적과 759㎡의 연면적의 규모로 철근콘크리트조의 2층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다.

후쿠이시내에서 Mo지구(16,428명)에 이어서 인구 규모가 15,662명으로 많고 상술한 Jun지구(인구 3,323명)보다 인구가 약 4.7배 많지만 Jun공민관보다 더 작은 규모이다. Me공민관 관장에 의하면 인구 수에 비해 작은 규모 때문에 Me공민관에는 방 이용의 예약이 비는 경우가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따라서 가장 넓은 다목적실([사진 2] a)은 필요에 따라서 많게는 3개의 방으로 나눌 수 있는 가동식 벽을 두어 이용인수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쓰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계단이용으로만 2층으로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다는 한계점 때문에 2층에서 실시하는 강좌에 대한 고령자의 참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고령자 중심 강좌는 1층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고령화로 인한 이용 장소의 변화로 배려하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2층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고령자 중에서도 바닥에 앉는 자세가 불편한 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다다미방에는 입식 가구를 배치해서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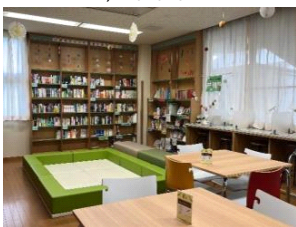
[그림 4] Me공민관 도면



a) 다목적실



b) 다다미방



c) 도서실1



d) 도서실2

[사진 2] Me공민관

Me지구에서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소는 도서실([사진 2] c)이며 2023년 크라우드펀딩으로 목표금액이었던 600,000엔을 뛰어넘는 686,000엔을 모금하여 기존의 노후화되

어 아무도 이용하지 않던 공간을 개수하였고 특히 방과후 시간이나 방학 기간 초등학생들이 매일 만실에 가까울 만큼 방문하고 있다. 이는 방과 후 아이들이 학교를 마친 후 머물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공민관 도서실이 아동들의 주요 활동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Me공민관 관장에 따르면, 최근 후 부모 혹은 조부모들이 아이들이 있는 공민관을 찾으면서 부모 세대에 이어 조부모 세대 간의 교류로도 이어지게 되었고, 이는 세대 간 교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신간 도서를 비치함으로써 청년 세대들의 도서실 이용 또한 증가했다고 했다.

운영의 측면에서도 Me공민관에는 다른 공민관과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으며, 그것은 1회성 강좌 및 이벤트를 다수 실시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엽서 꾸미기, 킷홀더 만들기 등 각종 크래프트 관련 강좌와 계절 야채를 활용한 모자 요리교실, 1인 가구를 위한 요리교실 등 요리 관련 강좌뿐만 아니라 함께 산책하기 이벤트 등이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세대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요리교실에서는 다양한 연령대가 서로의 조리법과 식문화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3.3 Mo공민관

1951년 5월 후쿠이현 Mo초의 공민관으로써 개관했다. 1967년 Mo초가 후쿠이시로 편입되면서 후쿠이시 Mo공민관이 되었다. 1992년 7월 현재의 건물에 Mo연락소와 함께 건물내부 전면 개수공사를 실시했으며, 2004년에도 일부 개수공사를 실시했다. 1,955㎡의 대지면적에 연면적 1,277.2㎡의 규모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3층 건물이다. 1층에는 Mo 연락소 공간이 있으며 출입구를 따로 이용한다.

Mo공민관이 위치한 Mo지구는 후쿠이시 내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2010년 11,836명에서 2024년 16,326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후쿠이시 대부분의 지구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초·중학교가 폐교되는 상황이지만, Mo지구에서는 오히려 신규 초등학교를 건립하고 있으며, 시 외 및 현 외에서 이주하는 가구도 많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Mo공민관은 기존 주민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새롭게 유입된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류 활동이 활발하다.

Mo공민관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개별 소규모 교류보다는 다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넓은 홀과 다다미방을 공간 구획 없이 개방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 이벤트 및 체험형 프로그램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민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교류 활동을 확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Mo역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갤러리([사진 3] a)로 활용하면서, 공민관을 방문하지 않는 주민들도 지역 행사와 전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민관 활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Mo공민관은 물리적 공간의 접근성 또한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다. 공민관으로서는 드물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 및 보행 약자들도 모든 층을 자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바닥에 앉기 어려운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다미방에는 필요에 따라 의자와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가구를 유동적으로 변경하며 대응하고 있다.



[그림 5] Mo공민관 도면

[사진 3] Mo공민관

코로나19의 유행에도 공민관 운영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강좌와 행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관장에 따르면 공민관 이용행태에도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는 회의실([사진 3] b)과 도서실([사진 3] c)이 있으며, 어린이와 고령자 등 다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는 다다미방([사진 3] d)과 홀이 있다.

Mo공민관은 기존 공민관들이 고립된 노인이나 1인 가구의 교류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지역 내 새롭게 유입된 주민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오래된 커뮤니티를 유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주민

들이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세대가 함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3.4 Ni공민관

후쿠이시에 편입되기 전인 1949년 4월 창립되어, 1951년 3월 후쿠이시 중앙공민관 Ni 분관이 되었다. 1974년 3월 현재의 위치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1989년 3월에는 증축공사를, 2011년 1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다.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대지면적은 988.6㎡, 연면적은 624.9㎡이다.

현관 옆 담화 스페이스([사진 4] a)는 카페로써도 이용하고 있어 교육사업과 무관한 교류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100엔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및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민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공민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공민관에 들를 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며, 가벼운 방문에서 시작된 교류가 점차 확장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6] Ni공민관 도면



[사진 4] Ni공민관

또한, Ni공민관의 관장에 따르면, 인근의 Ni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도서실 앞 프리스페이스(사진 4 b))와 도서실(사진 4 c))을 방과 후 및 방학 기간에 숙제 등을 위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에는 2층의 회의실 등도 이용했지만 안에서 문을 잠그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도서실에 한정하여 일상적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 조사 시에 다다미방(사진 4 d))에서는 육아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Ni공민관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세대 간 교류 중에서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교류 활동의 일환이다. 특히,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양육을 담당하는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부모-자녀 간 교류뿐만 아니라 조부모-손자 간의 3세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조부모 세대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가족 내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교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Ni공민관의 특징으로는 IT교육과 함께 유튜브 활동이 있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한 IT교육과 스마트폰 및 PC사용에 관한 상담을 상시 대응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진행 시에 공민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교류할 수 있도록 유튜브의 공민관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행사 상황을 송출하여 물리적 공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교류방안을 강구하며 공민관 활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3.5 En공민관

1948년 4월 후쿠이시공민관 En분관으로써 인젠초등학교내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1960년 분관제도 개정에 따른 분관 폐지로 인해 En 공민관이 창설되었다. 1972년 6월 현재의 위치로 독립하여 신축 이전했으며, 1992년 12월과 2014년 12월에 증축공사를 실시했다. 철근콘크리트조의 2층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1층의 홀은 철골조로 대지면적은 1698.0㎡, 연면적은 646.5㎡이다.

En지구는 쌀농사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방에서 보이는 논과 산의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사진 5 a)). En 공민관은 세대 간 교류뿐 아니라 대부분의 강좌 및 이벤트는 1층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넓은 홀(사진 5 b))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공간의 제약 때문에 축제나 체육대회 등은 인근의 En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En 초등학교 교와의 교류는 매우 활발해서 En 공민관이 임대한 논에서 지역 주민들과 En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쌀농사를 공동으로 지어서 리조토 전용 쌀(사진 5 c))을 생산하고 있다. En 쌀은 En지구에 있는 마트 등에서의 오프라인 판매 및 온라인판매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다세대 협력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En공민관은 조리실습실과 회의실(사진 5 d))이 일체화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가동식 벽으로 공간을 구분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세대 간 교류의 일환으로써 요리교실 등의 이벤트 실시시에 조리실습실에서 함께 조리한 것을 회의실에서 함께

식사하며 교류를 촉진한다. En공민관 관장에 따르면 2층에 다다미방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 바닥에 앉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용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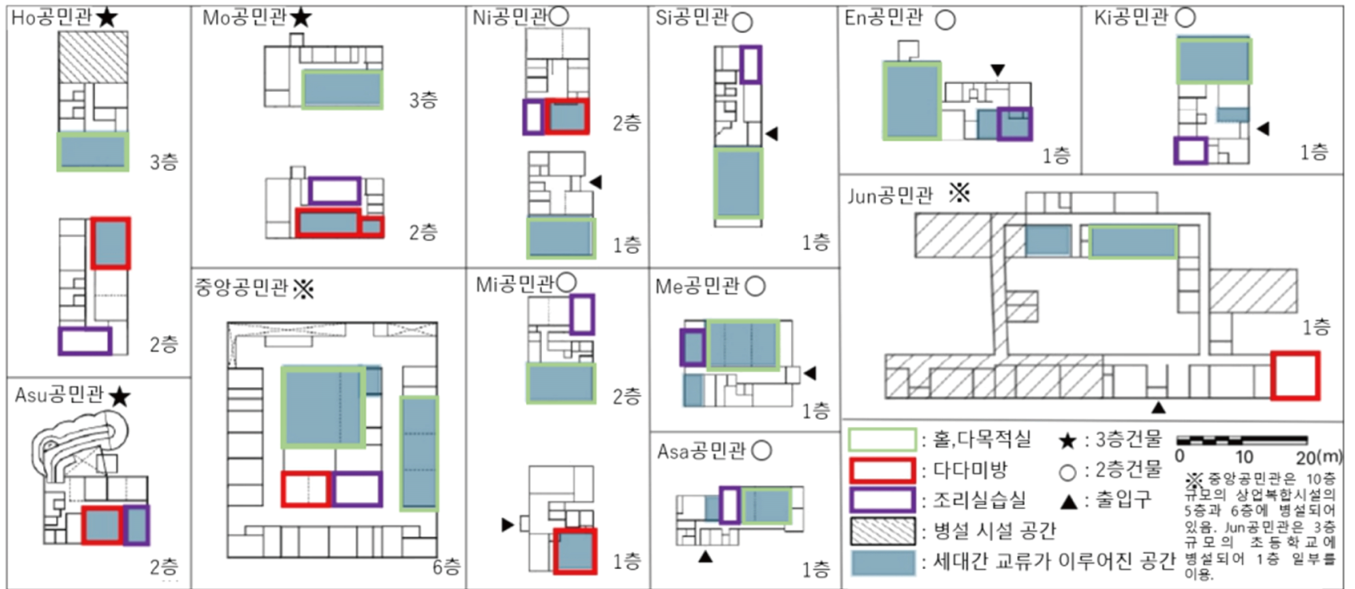
[그림 7] En공민관 도면



[사진 5] En공민관

3.6 소결

후쿠이시 공민관의 조사 결과,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공간적 요소는 공민관의 구조와 배치, 공간 활용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민관 내 다목적실, 조리실, 도서실, 다다미방 등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공간의 개방성과 유연성이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공간 구획 방식과 배치에 따른 교류 방식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일부 공민관에



[그림 8] 공민관별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진 공간

서는 가동식 벽을 활용하여 공간을 가변적으로 조정하고,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공간의 기능을 변화시켜 세대 간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공민관의 입지는 지역 내 다른 시설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었으며, 초등학교와 병설된 공민관에서는 교육 시설과 연계하여 다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후쿠이시 공민관은 단순한 학습 및 복지 시설을 넘어,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건축적 요건을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공간의 개방성과 유연성, 시설 간 연계성, 접근성을 고려한 배치 등이 공민관에 세대 간 교류의 거점으로 기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후쿠이시 공민관 사례를 통해 세대 간 교류를 지원하는 공공시설의 건축적 특성과 운영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후쿠이시의 공민관 중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설을 선정하여 공간 구성과 활용 방식, 프로그램 운영 등을 비교-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공공시설의 핵심 요소로 공간 설계의 유연성과 운영 방식의 조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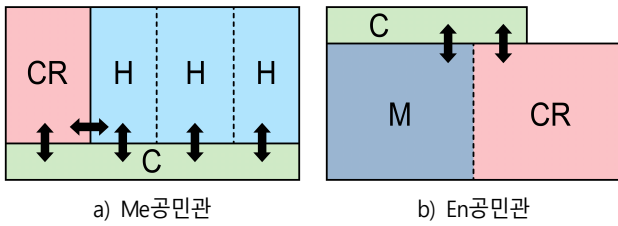
먼저, 공간 설계 측면에서 후쿠이시의 공민관은 지역적 특성과 생활권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하고 있었다. 평지 지역에서는 공민관이 지구 중심부에 위치해 주민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있었으며, 산지 지역에서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입지하거나 분관을 설치하여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공민관은 초등학교와 병설되어 어린이와 부모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유도하고 있었으며, 다목적실과 조리실을 연계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공간 구성 측면에서도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요소가 반영되었다. 가동식 벽을 활용한 다목적실, 조리실과 회의실의 일체형 배치, 개방적인 담화 공간 등은 다양한 연령층이 공민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엘리베이터 설치, 다다미방 내 입식 가구 배치 등은 이용자의 특성에 맞춘 공간 조성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진 주요 공간을 살펴보면, 모든 공민관에서 활용된 공간은 홀이었으며, 이는 규모가 크고 많은 인원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세대 간 교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다다미방은 5개 공민관에서 세대 간 교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다다미방 전용 가구를 구비하지 않은 공민관에서는 바닥에 앉는 것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다다미방에서의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용 가구 구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시사된다.

다음으로, 운영 방식 측면에서는 공민관이 단순한 시설 제공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전통놀이 교실, 요리 교실, 지역 축제, 육아 지원 프로그램 등은 세대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며, 공민관이 세대 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공민관 외부 공간을 활용한 교류 확대 등의 시도는 공공시설이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이는 공민관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세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리실도 세대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공간 중 하나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Me공민관과 En공민관에서는 조리실을 활용한 요리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Me공민관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요리 교실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가 서로의 조리법과 식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En공민관

에서는 지역 주민과 초등학생이 함께 요리하며 공동 식사를 통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두 공민관 모두 조리실습실이 회의실이나 홀과 직접 연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어, 복도를 통하지 않고 조리된 음식을 바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특히, En공민관의 경우 조리실습실과 회의실 사이에 가동식 벽이 설치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공간을 일체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조리 후 자연스럽게 공동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한 조리 활동을 넘어, 공동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대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그림 9]).



<범례> M:회의실 / H:홀, 다목적실 / CR:조리실습실 / C:복도 및 홀
[그림 9] 조리실습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공공시설의 건축적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표 6). 첫째, 다양한 세대가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 내 중심적 위치에 배치하거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입지하여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세대 간 교류를 유도하는 공간 구성을 위해 다목적 공간의 유연한 활용과 공유 공간을 조성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운영 전략으로 세대 통합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류 방식과 공공시설 외부 공간을 연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표 6]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공공시설 계획 요소

구분	세부 내용
다양한 세대가 접근할 수 있는 입지 계획	- 생활권 내 중심적 위치 선정 - 거주지와 근접한 배치 또는 분관 설치를 통한 접근성 확보 - 공공시설(학교, 도서관 등)과의 연계를 고려한 복합적 입지 조성
세대 간 교류를 유도하는 공간 구성	- 다목적 공간의 가변적 활용(가동식 벽 등) - 공유 공간(담화 공간, 복도 등)의 적극적 활용 - 고령자 및 장애인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운영 전략	- 세대 통합형 프로그램 기획(전통놀이, 요리 교실, 공동 학습 등)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교류(온라인 강좌, 유튜브 채널 운영 등) - 공공시설 외부 공간(광장, 역사 등)을 활용한 지역 연계 활동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러한 공간 설계 및 운영 전략은 한국 사회에서도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공공시설 기획 및 운영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공공시설은 주로 청소년 회관, 노인복지관 등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대부분이며, 일본의 공민관처럼 다양한 세대가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시설은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기존 시설들은 세대 간 교류의 목적성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개별 시설로 분리되어 있어 복합적인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주로 경제적·사회적 복지 욕구가 있는 계층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반해, 공민관은 교육 시설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학습과 교류 활동을 기획·운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세대 교류 시설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연령과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 공민관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세대 간 공동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유연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이 세대 교류 시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존 복지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의 운영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본의 공민관과 유사한 개념으로 한국에는 평생학습관이 존재하지만, 이 시설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민관과 같은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평생학습관은 성인 교육 중심의 공간 활용이 주를 이루며, 다양한 세대가 자발적으로 모이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에는 물리적, 운영적 제약이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평생학습관, 청소년 회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이들을 연계하여 세대 통합형 공간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학교 내 유휴 교실을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교 내 사용되지 않는 교실이 증가하고 있다. 이 공간을 다세대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연령층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 내 공공시설에서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조사하고, 후쿠이시 공민관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적용 가능한 모델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세대 간 교류 촉진 전략을 제안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윤경, 변수정, 김은정, 진화영, 주보혜, 남궁은하, 김주현, 정윤경,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37400/1/%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202020-26.pdf>,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2.16.
- 吉津晶子・溝邊和成, 2017, 世代間交流の教育的意義に関する研究の動向と課題. 海外事情研究, 44(1), 109-127. 熊本学園大学付属海外事情研究所.
- 日本公民館学会, 2006, "公民館・コミュニティ施設ハンドブック", エイデル研究所, 東京都
- 福井県公民館連合会, 2000, "福井県公民館50周年誌", 福井県公民館連合会, 福井市
- 福井県公民館連合会, 2011, "福井県公民館連合会10年のあゆみ", 福井県公民館連合会, 福井市
- 福井市役所教育委員会事務局生涯学習課, 2023, "公民館一覽", <https://www.city.fukui.lg.jp/kyoiku/gakusyu/kominkan/p004649.html>, 福井市, 2025.01.13.
- 福井市役所教育委員会事務局生涯学習課, 2013, "公民館マップ", <https://www.city.fukui.lg.jp/kyoiku/gakusyu/kominkan/map.html>, 福井市, 2025.01.13.
- 福井市役所, 2025, "福井市人口統計", <https://www.city.fukui.lg.jp/sisei/tokei/jinko/jinkoutoukei.html>, 福井市, 2025.01.12.
- 福井市公民館連絡協議会, 2011, "福井市公民館五十年誌", 福井市公民館連絡協議会, 福井市
- 厚生労働省, 2023, "2023(令和5)年 国民生活基礎調査の概況",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k-tyosa/k-tyosa23/dl/02.pdf>, 厚生労働省, 2025.01.13.



접수 : 2025년 1월 15일
1차 심사완료 : 2025년 2월 3일
게재확정일자 : 2025년 2월 21일
3인 익명 심사 필

www.kci.go.kr